제42호
발 행 일 : 서기 2021년 1월 20일(수)
창 간 일 : 서기 2000년 8월 25일
구 독 신 청 : (02) 8 3 6 - 5 6 3 1
F A X : (02) 8 3 3 - 9 4 0 1
H . P : 010-4711-8127

安東金氏 翼元公派宗會報

발 행 인 : 김 재 남
편 집 인 : 김 영 수
발 행 처 : 안동김씨익원공파종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8길 8(대림동)
인 쇄 인 : 김 원 희
사무실 전화번호 : (02) 836-5631
사무국장 휴대전화 : 010-4711-8127

신 년 사

회장 김재남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전 세계를 뒤 흔들어놓고 있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펜데믹 현상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편함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여름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방생했는데 종친 여러분들께서는 피해가 없으셨는지요? 그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크고 작은 일들은 그냥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과연 그 끝은 언제쯤일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특히 지난 3월초에 경북 대구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 되어 나갈 때 예방을 위한 꼭 필요한 마스크가 품귀가 되어 구입할 수 없어 우리종친님 들 게서 애를 태우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 끝에 구입처를 찾아 개당 2.500원씩 300개를 긴급으로 구입 대구와 부산지역 종친들에게 급송하여 위기에 대처 하였으며 이곳 회관 지하에 누수로 인해 노래방에 물이 차 퍼내고 벽체일부와 바닥 방수공사를 10여 일간 실시하여 노래방 정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실 마당 밑 밭의 경계 축대가 붕괴 우려가 있어 옹벽 공사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 들입니다.
정작 취임 시 말씀들인 위선 사업인 재실 일체 리모델링. (재실단청. 앞마당. 담장. 소슬 문 축대. 등) 은 여러분들과 논의도 못한 채 2년이란 세월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한 것도 없이 마음만 바쁘게 세월만 보낸 것 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코로나19 감염과 전국이 물난리로 피해가 많이 발생 했는데도 우리종친들께서는 이를 모두 지혜롭게 이겨내신 것이 더 큰 소득이라 생각하오며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1년 辛丑년을 맞이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위선 사업은 반듯이 성공적으로 끝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종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들입니다.
종친여러분 !
새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건강하심 속에 겨울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19 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서 온 가정이 행복하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아가 후손들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안동김씨 문중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합해 주 실 것을 간곡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제가 중책을 맡은 지도 벌써2년!
안동김씨 익원공파종회 회장 金在男

謹賀新年

지난해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더욱더 발전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며
종친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임원일동-

고 문 : 洙栢(부), 恒植(부), 善會(부), 錫漢(전), 在湜(전), 在勳(전), 東洙(문), 在鎔(문), 昌植(문), 榮俊(문), 容大(효), 泰吉(효), 智黙(효), 容瑞(효),寅會(목), 容世(목), 文元(목)
명예회장 : 在 永(문)
회 장 : 在 男(효)
부 회 장 : 根植(문), 仁植(참), 洙寅(부), 在擇(전), 在奎(전), 善會(문), 泰龍(문), 允會(문), 康植(문), 容黙(효), 允黙(효), 聖會(효), 在和(효), 泰成(효), 閔植(목), 正黙(목), 泰政(목), 泰信(목)
감 사 : 在萬(전), 張會(목)
이 사 : 龍浩(참), 仁大(참), 煐錫(부), 銀業(부), 京會(부), 正會(부), 信會(부), 洙銀(부), 昌會(부), 光洙(부), 鳳會(부), 恒會(부), 容觀(부), 泰振(전), 俊會(전), 忠植(전), 正會(전) ,在道(전), 銀會(전), 在善(전), 鎭默(문), 永會(문), 德會(문), 容九(문), 珍會(문), 容鎬(문), 洙山(문), 根植(문), 泰喆(문), 晟會(문), 英植(문), 在權(문), 得會(문), 進洙(문), 恒默(문), 在鎬(문), 亨植(문), 창묵(문), 英桓(효), 泰鴻(효), 順植(효), 正默(효), 于植(효), 德敎(효), 在源(효), 達洙(효), 春植(효), 泰蓮(효), 昊鎭(효), 英詳(효), 泰善(목), 泰均(목), 榮和(목), 鍾默(목), 福述(목), 在翰(목), 容默(목), 泰吉(목), 泰國(목), 泰恭(목), 容基(목), 桂默(목), 在賢(목), 泰璿(목), 義峻(목), 峯默(목), 在瀅(목), 在兢(목)

공 고 2021년도 안동김씨익원공파종회 관련 정기 회의일정 및 장소

종회별	이 사 회		총 회		교 통 편 (총회 장소)
	일 정	장 소	일 정	장 소	
대종회	2021년 3월 11일 11시	백범기념관	2021년 3월 25일 11시	백범기념관 용산구임정로26 02) 799-3400	효창공원역-6호선1번출구 5,6호선공덕역 6번출구 마포발 17번버스 4호선 숙대역2번출구 남영우체국버스400번
문영공	2021년 3 월12일 11시	문영공재실(경모재) 안양시동안구일동로151	2021년 3월 26일 11시	별도: 公示	별도 :公示
익원공 종회	2021년 3월 10일 11시	문영공재실(경모재) 안양시동안구일동로151 (관양동329-1)	2021년 3월 24일 11시	백악관웨딩문화원 영등포구신길로89 7호선4번출구, 앞	지하철:7호선신풍역4번출구, 앞 마을버스:01,07,13 노선버스:파랑654 녹색버스 : 5713,5616,6411

▣ 당일 총회가 끝난 후 이어서 동추공, 문정공, 목사공, 등 총회가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613주기 익원공 휘 김사형 不祧 廟 祭享 奉行

2020년9월16일(음7월29일)수요일 13시 전북 고창군 공음면 갑촌길 20(도암서원 內)익원공 부조 묘에서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제 인원을 조정 제향 봉행에 필수 인원만 참석 하도록 하여 김재영 익원공파종회 명예회장님을 비롯 김재남 파종회장 등 20여 종친이 참석하여 분정회의를 시작으로 不遷位 祭享이 조용하고 엄숙하게 奉行 되었다 오전까지 비가 오다 제향을 올리는 순간에는 비가 그쳐 익원공 할아버지께서 편히 흠향 하시라고 하늘이 봐 주셨다고들 기쁜 마음으로 제향에 임하였다.

粉定會議에서 推薦된 獻官 및 執事는 초헌관에 김수인(좌랑공 회장 고창) 아헌관 김영수(사무국장) 종헌관 김정묵 효소공 이사(부산) 진설 일수 좌랑공 이사(고창) 집례 김태철 문영공 총무이사(수원) 대축 경회(고창) 찬인 김태신 부회장 (목사공 서울) 봉향.봉로 김재원 이사(효소공 부산) 사준 김태용 참의공 회장(문정공 수원) 전작 김형식 이사(문정공 인천) 직일 김재영 명예회장 등 參祭者 들도 先祖任의 爲業을 생각하며 崇祖精神으로 祭禮에 임하도록 해달 라는 執禮 (태철)의 당부에 따라 엄숙하게 奉行이 되었다.

이날 당진 용세 고문(목사공)게서 백련막걸리 2박스를 보내와 음복주로 사용했으며 제향을 마치고 전북 고창읍 도산리 김정회 고가(金正會 古家)를 방문 후 귀가 하였다. 金正會 古家는 전북 고창군 공읍면 도산리 있는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29호로는 조선시대 양반의 가옥의 전형적인 형태인 이집은 김정회(익원공 20대손 1903 - 1970)씨가 살아 온 집이다 조선숙종 8년(1682년)지었다고 하며 안채, 사랑채. 행랑채. 문간채. 사당과 두동의 곡간채로 이루어 졌다.

호를 보정(普亭)이라 한 김정회는 전라남도 장성의 유학자인 기우만(寄宇萬)에게 한학을 배우고. 우리나라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하나인 경학원 즉 성균관의 전신인 명륜 전문학원에서 경학을 가르친 학자이자 해강 김규진(海岡)에게서 서화를 배운 서예가시며 그는 특히 난과 대나무를 잘 그리신 안동김씨 익원공파종회 의 가문을 빛낸 좌랑공 문중의 후손이시다.

익원공 휘 김사형 부조묘 제향 향촉대 현황

단위: 원

번호	성명	금 액	비 고
1	김 재 남	500.000	익원공파종회 회장
2	김 봉 회	500.000	부령공 이사 천안
3	문영공 종회	200.000	문영공 종회 안양
4	참의공 종회	200.000	문종공종회 참의공 종중
5	김 재 영	100.000	명예 회장
6	대종회	100.000	안동김씨 대종회

번호	성명	금 액	비 고
7	김 영 수	100.000	익원공파종회 사무국장
8	김 태 철	100,000	문영공 종회 총무 이사
9	김 태 용	100.000	문정공종회 참의공 회장
10	김 태 신	100.000	목사공종회 부회장
합계		2.000.000	

백범 김구선생 제71주기 추도식 참배

2020년 6월26일 백범 김구선생 제71주기 추도식이 코로나19 전염병 의 창궐로 인하여 실내에서의 추모행사는 생략되고 효창 공원 內 묘소에서 참배 행사로 거행 많은 국내 내빈들을 비롯해서 참배객 들이 줄을 이었다.

이날 안동김씨 문중에서도 안동김씨 익원공파종회 문정공 종회 김근식 회장을 비롯하여 김진수 김성회 김연식 김영수 사무총장 등이 종친으로 참배를 올리면서 우리겨레의 큰 스승으로서 민족애와 조국의 진정한 독립과 통일을 위한 확고한 신념으로 일생을 바치신 우리가문의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신 선생님을 추모하며 잠시 추도가를 가슴깊이 되새겨보았다.

백범 김구선생 추도가

이은상

어허 여기 발 구르며 우는 소리
지금 저기 아우성치며 우는 소리
하늘도 땅도 울고 파도조차 우는 소리
끝없이 우는 소리 임이여 듣습니까.
임이여 듣습니까.

이 겨레 나갈 길이 어지럽고 아득해도
임이 계시오매 든든한 양 믿었더니
두 조각 갈라진 땅 이대로 버리고서
천고에 한을 품고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떠도신 칠십년이 비바람도 세옵더니
돌아와 마지막에 광풍으로 가시다니
열매를 맺으려고 지는 꽃 어이리까.
품으신 피의 값이 헛되지 않으리다.
헛되지 않으리다.

삼천만 울음소리 임의 몸 메고 가오
편안히 가옵소서 돌아가 쉬옵소서.
뼈저린 아픈 설움 가슴에 부드안고
끼치신 임의 뜻을 우리 손으로 이루리라
우리 손으로 이루리라

제613주기 익원공 휘 김사형 향사 및 제584주기 밀직사사공 향사

2020년11월20일(음.10월6일) 금요일 11시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49번지 묘하에서 코로나19 방역 체계1.5단계 시행관계로 참제인원을 조정하여 김석한 대종회장 김재영 문영공 회장을 비롯 고문 회장단 등 50여 종친이 참제 날씨관계로 재실에서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올리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향사가 봉행이 되었다,

향사전 분정회의에서 익원공 향사에는 초헌관에 김석한 (대종회장), 아헌관에 김형남(안렴사공파종회장), 종헌관에 김재영(문영공회장), 집례 김태철(문영공 총무이사), 대축 형식 이사, 봉향 태용, 봉로 봉작 재정, 사준 태연, 전작 태신, 시도 영수 전첨공 직일 재용 등이 추천 되여 향사를 봉향 한 후 이어서 밀직사사공 향사를 봉향 하였다.

밀직사사공 향사에는 초헌관에 김재남 익원공파종회 회장, 아헌관에는 김태정 목사공 강릉, 종헌관에는 김재훈 고문 등이 추천 되었으며, 제례행사를 모두마치고 낙포재 재실에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담소로 조상님의 음덕을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다.

김재남 파종회장에 이어 김석한 대종회장게서 인사말과 선물로 무릎담요 60개(개당25.000원 상당)기증하였으며 당진목사공 용세고문께서 백련맑은술을 두박스 보내와 제주로 사용하였다.

익원공파 시조이신 휘 김사형의 호는 洛圃이고 안동부인(安東府人)이시다 우리 안동김씨의 중시조이신 상락군 개국공신 충렬공의 현손 이시며 중대광 상락군 김순(문영공)의 증손 이시고 상락후 김영후(정간공)의 손자이시며. 보국승록대부 영삼사사 상락군 金蔵(김천)의 子이시다.

고려 충혜왕 2년辛巳年(1341년)에 출생하여 고려의 벼슬은 단성보리공신삼사좌사 동판도평의사사를 역임하셨으며 조선왕조에서는 순충분의 자명동덕 개국공신 추충협찬 정란정사공신 대광승록대부 의정부 좌정승 겸 영경연사감춘추관사 세자부 상락부원군 시호는 익원공이시다. 태종 7년 정해년(1341년) 7월 30일 향년 67세로 서거하셨다.

2020년 제613주기 익원공 세일사 향촉대 접수현황

단위: 원

번호	성명	금 액	비 고
1	김재남 회장	1.000.000	익원공파종회 회장
2	김석한 회장	500.000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3	문영공 종회	200.000	안동김씨 문영공 종회
4	김재용	200.000	익원공파종회 고문. 서울
5	대종회	200.000	안동김씨 대종회
6	참의공	200.000	수원 문정공 종회 참의공 종중
7	김형남 회장	100.000	안렴사공파종회 회장
8	김용묵	100.000	효소공 회장 익원공파종회 부회장
9	관찰사공 종회	100.000	전첨공 종회 관찰사공. 양주
10	김재영 명예회장	100.000	익원공파 명예회장. 수원

번호	성명	금 액	비 고
11	김형식	100.000	익원공파종회 이사
12	김재훈	100.000	익원공파종회 고문. 양주
13	김태철	100.000	문영공 종회 총무이사
14	김태용	100.000	문정공종히 참의공종중 회장
15	김태신	100.000	익원공 파종회 부회장. 목사공
16	강릉주부공	100.000	목사공 종회 주부공 종중. 강릉
17	김태성	100.000	익원공파종회 부회장. 효소공 청주
18	김인회	50.000	강릉 익원공파종회 고문
19	김태정	50.000	강릉 주부공 회장

同樞公 諱 宗淑 歲一祀 奉享

2020년11월25일(음10월10일)수요일 11:00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113-1번지 동추공 묘하에서 코로나 창궐로 인해 참제 종친을 조정하여 5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올리고 분정회의를 시작으로 향사가 봉행이되었다.

이날 초헌관에 在男(익원공파종 회장) 아헌관에 寅會(목사공) 종헌관에 泰龍(수원 참의공 회장) 집례 태철(문영공 총무이사) 대축 재현(재현 강릉) 진설 榮和(목사공) 봉향 在權(문정공) 봉로 재권(문정공) 봉작 在權(문정공) 전작 형식(문정공) 직일 聖會(익원공 부회장) 등이 추천이 되고, 집례로 추천된 태철(문영공 총무이사)이 제 참제자들에게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례에 임하여 달라는 당부에 말씀에 따라 향사가 봉행이 되었다.

오후에는 小派別(문정공, 효소공, 목사공, 풍양군) 선조님 묘소로 이동하여 각지파별로 향사를 봉행하였다.

동추공 휘 종숙은 서기1400년(경진) 정종2년에 탄생하시여 가선대부 행동지중추부사 정현대부 의정부좌찬성 贈 순충덕적보작 공신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 상락부원군으로 1470년(경인년)71세로 서거하셨다.

전첨공 휘 종윤. 장남 감찰공 휘 침. 歲一祀 奉享

2020년 10월20일 일요일(매년10월 셋째 일요일)11시 충북 괴산군 청안면 초천리 산106번지 전첨공 묘하에서 김석한 대종회장 김영수 익원공 사무총장 김선회 안렴사공파종회 前회장 김재명 안렴사공파종회 부회장 등 20여 참제자가 모인가운데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올리고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향사가 봉행이 되었다 .

향사전 분정회의에서 초헌관에는 김영수 . 아헌관에는 김재명 안렴사공파종회 부회장. 종헌관에는 김태진. 집례 김선회 안렴사공 전회장. 대축에 김충식 총무. 직일 김석한 대종회장 . 등 추천이 되여 향사가 봉행이 되었다.

이날 향사를 모신 선조님은 전첨공 휘 종윤. 익원공 의 셋째손자 감찰공 휘 침 익원공 증손자. 현감공 휘 선손 익원공 고손자. 좌랑공 휘 담 익원공 현손(선손의 5 子)님 이시다.

향사가 끝나고 묘하에서 음복과 미리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김재택 회장께서 오늘 향사 진행을 질서있게 잘해주신 김선회 안렴사 전회장님과 특히 김재명 부회장님께서는 청안 현감을 역임하신 선손 선조님 묘소를 지역 문화재로 지정을 위해 수년전서부터 자료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시며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참제 하시어 헌관까지 해주신데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전첨공 종친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孝昭公 諱 碏, 墓所 및 贊儀公 諱 孟諴, 墓所 整備

안동김씨 익원공파 효소공 종회에서는 지난 식목일을 기해 효소공 휘 작 묘소 및 찬의공 휘 맹함 묘소에 봉분을 비롯하여 제절 앞 등 잔듸가 고사 하고 주변에 잡목이 무성하여 특히 찬의공 맹함 묘소 앞 바위틈새에 잡목들이 우거져 있어서 주변 경관이 좋지가 않아 참배 시 종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을 효소공 종회 김용묵 회장이 종친들을 설득 하여 20여 종친이 동원이 되어 선조님에대한 효심으로 그 더운 날씨에 고생을 인내하며 잡목을 제거 한 후 조경수로 식수를 하고 잔디를 보식하여 묘소를 말끔히 정비하여 주변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재조명해보는 선조님의 역사 (1)

영의정 낙흥부원군 김자점(領議政 洛興府院君 金自點)

공의 호는 낙서이고 익원공 휘 김사형의7세손이며 문정공 김질의 증손자 관찰사공 김억령 의 친손자 현감공 김탁의 차남이시다.(1588년 선조21년 - 1651년 효종2년)

이처럼 화려한 가문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우계 성흔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벼슬은 음사로 등용되여 병조좌랑에 이르렀으나.

광해군 때에 인목대비의 폐비논의에 반대하는 등 대북세력과 맞서다가 그들에 의해 밀려나기도 하였다,

병자호란 때 는 도원수로서 북진을 지키는 책임을 맡아 강홍림 최명길 등과 함께 친정을 주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되였고 병자호란 때 참패의 원인을 공에게 뭇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 때 그의 주역으로서 정사1등공신이 되어 서인이 집권하게 되었고 반정의 논공 때문에 불평이 생겨 반정에 찬,반파로 공을 중심으로한 낙당과 원두표를 중심으로 한 원당으로 갈라저서 낙당을 공서 원당을 훈서 또는 청서로 칭하여 서인이 분열되어 대립상태 가 되었다.

그러나 공은 1627년1월에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인조를 호종하였고 순검사 임진수어사로로 활약하였으며 1630년 한성 판윤에 이르고 1633년에 도원수에 이어 1642년에 병조판서에 올랐다.

공의 손자인 김세룡이 인조의 딸 효명옹주와 혼인함으로서 공의세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1643년 판의금부사 우의정 1646년(인조24년)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오르고 낙흥부원군 에 봉해졌다.

공은 정승 재임 시 선정을 베풀어 특히 농업정책에 힘을 기우려 호남지방에 보(褓)를 축조하고 저수지를 만들어 지금도 그 이름이 自點褓로 불리는 곳이 있으며 황해도 재령에서는 황무지를 개척 곡창지대 만들었다는 그곳 향지(鄕紙)에 실려 400여년 가까운 지금까지도 세인의 입에서 전설로 전해 저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또 전국의 치산을 잘하여 서울 홍제원에 낮에도 범이 출몰 한다는 소문에 인조께서 심히 걱정 하면서 공에게 대책을 강구하심에 공께서는 온돌방을 연구하여 장안 세도가들은 물론 백성들 까지도 권장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유래 없는 온돌방 생활을 하고 있다.

1650년 인조가 승하 하고 효종이 즉위하자 김경려 송준길 등이 김자점이 국정을 어지럽힌다고 상서를 올려 파직되어 강원도 홍천과 전라도 광양으로 유배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계는 다시 송시열 김상헌 송준길 등을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그 뒤 해원령 영과 진사 신호 등이 김자점이 역모를 도모하고 있음으로 그를 살려서는 된다는 상소가 빗발치자 효종도 할 수 없이 1651년(효종2년) 역적의 누명을 씌워 처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익원공 후손들은 그 연류를 두려워하여 먼 지방으로 자취를 감추고 족보와 조상의 문적까지도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구안동김씨 가문은 사양의 길에 접어들게 되고 말았다.

이로써 원당이 득세하여 신안동 김씨 선원 김상용 청음 김상헌 형제가 상신에 올라 세도를 잡음으로서 이후 순조. 헌종. 철종. 때까지 60년간 세도 정치기가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이 대옥사 를 신문한 사람이 원당 중심의 인물인 원두표였으니 권력을 잡기위한 치열했던 정치세력 투쟁에 희생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 같다.